

농주농협, 농협중앙회 최우수 농·축협 선정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창립 64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최우수 농·축협 수상단체로 농주농협을 선정, 총화상을 수상했다. (사진)

총화상은 전국 1110개의 농축협 중 최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농협 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또 서영암농협 김옥범 과장을 전국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 우수직업상을 수상하고 1호봉 특별 승급시켰다.

창립 기념 정부포상 수상자로는 대통령상에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 조합장이 대통령상에 받았고 국무총리상에 순천원협 채규선 조합장, 장관상에 담양농협 김범진 조합장이 선정, 수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동신대, 타오르는 강 문화관광 아카데미 출범



동신대학교 AI글로벌융합연구소(소장 정순남, 이상준)가 개설 첫 사업으로 '타오르는 강 문화관광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사진)

동신대 AI글로벌융합연구소가 운영하고 나누시가 주최하는 이 아카데미는 영산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문순태 작가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에 담긴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제대로

해밀학교 설립한 인순이 펠릭 '영향력 있는 여성상' 선정



가수 인순이(사진·본명 김인순)가 미국 펠릭 인터내셔널이 시상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상'(Woman of Influence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펠릭 인터내셔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인순이의 수상자 선정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지난 2000년 고(故) 이희호 여사 이후 25년 만이다.

펠릭 인터내셔널은 "인순이는 인도주의자이자 혼혈·다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의 옹호자"라며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펠릭 인터내셔널의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회의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음악 산업에서 성공을 거뒀고, 고국에서 유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펠릭 인터내셔널은 특히 인순이가 지난 2013년 강원도 홍천에 설립한 다문화 학교인 해밀학교도 소개했다. 인순이는 이 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순이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적십자사, 수해복구 앞장 국군장병에 치킨 선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광주 전남지역 수해복구활동으로 고생한 육군 8332부대 장병들을 응원하고자 치킨 80마리를 전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활동은 교총F&B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손스리바'와 연계한 활동으로, 폭염 속

에서도 묵묵히 수해복구 활동에 헌신한 국군장병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대학 RCY 단원들이 육군 8332부대로 직접 방문하여 치킨과 함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선, 광복절 기념 81.5km 완주... 23억원 기부

가수 선(사진)이 지난 15일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기부 마라톤 '2025 815란'을 열고, 81.5km 마라톤 완주에 성공했다고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가 16일 밝혔다.

선은 이를 통해 조성한 23억여원의 기부금을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한국해비타트에 전액 기부했다.

'2025 815란'은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해 감사함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선은 2020년부터 '815란', 2021년부터 '3·1란'을 통해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인원인 1만9450명의 개인 참가자가 24일 만에 모집됐다. 선은 무더위 아래에서도 7시간 50분 22초에 81.5km를 완주했다. 오프라인 참가자 4000명이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 선과 함께 달렸고, 선과 소환이 참여한 특별 콘서트도 진행됐다.

노스페이스·미라클365 등 후원 기업 110곳의 기부금과 개인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23억 8000여만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19세대에 새보금자리를

현정했고, 현재는 20~22번째 집을 짓고 있다. 선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누적 65억여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새 박사' 윤무부 교수 별세



'새 박사'로 이름을 널리 알린 소설(素石) 윤무부(사진)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15일 0시1분경 경희의료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윤 교수는 2006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재활에 성공했지만, 지난 6월에 재발해 경희의료원에서 투병해왔다.

경남 통영군 장승포읍(현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영고, 경희대 생물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한국교원대에서 '한국에 사는 휘파람새 Song의 지리적 변이' 논문으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2006년 경희대 생물학과에서 강의했고 2006~2014년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었다.

고인은 KBS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등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새들의 먹이 활동과 번식 등 생태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전달해 '새 박사'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 좋아 좋아	30 애니갤러리
11	10 여름방학특집 3부작 우리말 겨우기(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스페셜	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45 팬티히어로2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미니미니 미니니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55 광주MBC 특선영화 길 위의 대통령	00 세 개의 시선(재)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이맘때(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3		00 KBS 뉴스타임 15 월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00 광주MBC 보드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네모세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폭수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닥터 365 55 시장이 좋다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드	35 시사타치! 따따부따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여왕의 집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오래된 만남 추구	00 폭수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50 오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400회 특집 릴레이 동시이동2 너는 내 운명
11	35 월24 1945. 그때 지금이 시작되었다(재)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스모킹 건(재)		50 닥터 365
12	2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40 MBC 뉴스 25	00 열린예술무대 뒤란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 <아시아 핫 플레이스 - 삶이 만든 명소, 베트남>	17:50 자이언트 팽TV(재)
05:30 클래스 e	12:00 EBS 뉴스 12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재)	12:10 극한직업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6:10 세계테마기행 <달콤한 식탁 태국 - 육향 가득 뜨랑>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만국
07:00 애코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왔다 내 손주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0:40 세계테마기행 <아프리카의 유혹- 오! 빅토리아 폭포>
07:30 슈퍼왕스 슈퍼콤보	15:10 고향만국	21:35 한국기행 <낙원은 락스)이다 1부 내 로망, 동굴>
07:45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15:40 마사와 곰	21:55 PD로그
08:00 댕댕댕 댕댕댕	15:55 불꽃	22:45 세계극한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이지
08:50 영유아 클래스 e	16:10 댕댕댕 댕댕댕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20 자이언트 팽TV	17:00 페파 피그	24:40 클래스 e(재)
09:40 PD로그	17:1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10:30 한국기행(재)	17:40 도래미 프렌즈 쇼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8일(음 윤6월 25일 己未) ☎ 010-9790-8237

<p>36년생 합리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자. 48년생 남의 탓으로 돌리던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60년생 투명하게 처리하던 문제가 되지 않으니라. 72년생 행운의 문이 열리게 되는 마당이다. 84년생 머지않아서 길조가 상승할 것이니 수용할 태세를 하라. 96년생 이치에 맞지 않으면 속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39, 66</p>	<p>42년생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54년생 대등 소이하니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66년생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겠다. 78년생 그대로 놔두면 아 니 되니 속히 분할해야 한다. 90년생 정확하게 선별해 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 02년생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로다. 행운의 숫자 : 18, 74</p>
<p>37년생 발전적인 논의를 한 끝에 결실을 이뤄내는 판도이다. 49년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르리라. 61년생 너무 오래되어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었다. 73년생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할 국세이니라. 85년생 김징이 보이니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97년생 지혜 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7, 62</p>	<p>43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전대미문의 행태로 나타나리라. 55년생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뜻깊은 영예로움이 있을 수다. 67년생 지리멸렬해 왔던 일들이 해결의 기미를 보 이기 시작한다. 79년생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91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20, 82</p>
<p>38년생 진중하다 보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것임에 틀림없다. 50년생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62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74년생 집 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86년생 총 동원되어야 성사를 기대할 수 있다. 98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 서 설득력의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17, 63</p>	<p>44년생 되새겨 볼수록 깊은 뜻이 있으리라. 56년생 씩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니 감안하고 대응하라. 68년생 어려운 상황이 만큼 두루두루 잘 살펴야겠다. 80년생 눈 에 띄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92년생 유기적 기능을 하면서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04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75</p>
<p>39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51년생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63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 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75년생 기가 막혀서 아예 말도 나오지 않는 판도가 펼쳐 질 것이다. 87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 준다. 99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43, 92</p>	<p>45년생 태산처럼 가만하면 있으면 될 일이다. 57년생 막 연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69년생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느니라. 81년생 피치 못해서 변경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93년생 일상을 내려 놓고 파안대소할 일이 있겠다. 05년생 흥사가 뒤따 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6, 56</p>
<p>40년생 적막이 있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52년생 급속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64년생 거창한 명분에 비해 서 실제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76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치룰 수 있는 법이다. 88년생 상대의 말에 숨 은 뜻까지 잘 파악해야만 하느니라. 00년생 요건을 구비하 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8, 79</p>	<p>46년생 문제를 제기할 만한 모순점이 보인다. 58년생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니라. 70년생 흥성이 지고 김징이 떠오르는 기세이다. 82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났 을 때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자. 94년생 최선을 다 한 다면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지겠다. 06년생 폭넓은 시야가 발전적인 단계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49, 91</p>
<p>41년생 불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53년생 신경 쓰 지 않으면 결핍될 수도 있다. 65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 서고 있다. 77년생 평상시에 자생력을 키워 놓지 않는다면 경쟁해야만 할 국량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알라. 89년생 아무런 목적도 정도도 걸으면 그만이다. 01년생 급하 게 뛰어들어야 할 일이 없다. 행운의 숫자 : 42, 53</p>	<p>47년생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59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 지 마라. 71년생 자신감 있게 행동함이 유리할 것이다. 83년생 경허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게 되어 있다. 95년생 가부를 분명히 표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07년생 안정된 마당에 되 어야 집중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9, 85</p>